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

(1741?-1801)



충청도 예산 여사울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광옥은 오랫동안 그 지방의 면장(面長)으로 일하였다. 본래 사나운 성격 탓에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런 그가 교리를 배워 입교하자 이웃들은 몹시 놀랐다.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끝에 그는 이전의 성격을 극복하고 어린양처럼 순해졌다.

1801년 신유박해 때 김광옥은 체포되어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였다. 현감은 그가 쓰러질 때까지 매질하였으나, 헛일이었다. 결국 친척 김정득 베드로와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수많은 형벌로 걸음을 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용기로 기쁜 얼굴빛을 띠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자 손을 마주 잡고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튿날 그는 들것에 실려 형장으로 가면서도 묵주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이르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바친 다음, 두 번째 칼날에 목숨을 바쳤다. 때는 1801년 8월 25일, 그의 나이 60세가량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이사 8,23ㄷ-9,3

화답송

시편 27(26),1,4.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1코린 1,10-13,17

복음 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 4,12-23 (또는 4,12-17)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양과 염소

98세 수녀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여러 수녀님들이 “베닐데 수녀님은 벌써 천국에 계실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큰 설교 다섯 편 가운데 마지막은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21~24장의 간략한 줄거리를 잠시 살펴봅시다. 21장에서 예수님은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22장은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이고, 23장은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시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재난들을 예고합니다. 그다음 25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태오 복음 첫 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헤로데와 악마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21,9)라고 환호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을 불쾌해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하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막상 그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따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입니다. 성전을 장사 수단으

로 삼고 그 덕분에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님께 쫓겨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탁자는 둘러엮지 않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의 탁자는 둘러엮으셨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전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장 혼인 잔치의 비유에는 초대를 거부하고 오지 않는 이들과 뜻밖에 잔치에 오게 되는 이들이 나오고, 또 그중에도 준비 없이 왔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장의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라고 일컬어지고, “불행하여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한 악인들보다 남들 눈에 의인으로 보이려고 가장하는 이들이 더 위험한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걸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23,37)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렇게도 찬양받던 하느님의 도성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고 예고하십니다. 24장에서는 그날을 앞두고 닥칠 환난들이 제시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식솔을 맡긴 종처럼,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길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착한 종처럼, 언제 심판이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25,32) 사람들을 갈라놓으시는 날이 예고됩니다. 하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나뉩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매일을 살아간다면, 지금 종말이 닥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저녁 천국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교회 안의 평신도 신분

「교회헌장」 제4장 제30항

「교회헌장」 제4장은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회 제3회기에서 “제4장 평신도”에 대한 최종안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제1회기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평신도가 교회 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사명 그리고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2회기의 수정안은 하느님 백성에 관한 부분과 평신도의 고유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교부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의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하여 제3회기에서 최종안을 여덟 개 항목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평신도들의 ‘사제직과 예언자직’에 대해서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4장의 첫 항인 “제30항 교회 안의 평신도”는 4장 전체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 첫 문장에서 공의회는, 3장에서 교계의 임무를 다룬 것에 이어서 이제 4장에서 “평신도(laicus)라고 불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status)”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평신도가 ‘교회 안의 신분’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교의 신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언급되었고, 신부와 수도자는 중세에 교회의 신분으로 나타났지만, 평신도는 1917년 법전까지 고유한 신분이 아닌 비성직자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신분을 명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헌장」의 신학적 배경을 해설하는 보고서는 ‘교회 안의 평신도들에게 영예를 인정하고 넓은 의미의 신분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봉사 직무를 맡은 성직자들과 함께 고유한 사명과 권한을 지니는 품위를 가진 신분으로 존재합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평신도의 신분과 사명을 현대의 특수 환경을 마주하여 더욱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기여한 바를 알고 있는 목자들은, 교회의 구원 사명이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 활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언급은 제3장 교계 제도의 첫 항(18항)에서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고 교회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러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고, 그 목자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언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목자와 평신도는 교회의 공동 활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
본당 활동에 사제와 함께 봉사하는 구역장·반장들

끝으로, 공의회는 에페 4,15-16의 직접 인용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이가 협력해야 할 공동 활동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성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이가 결합하고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해 나갑니다. ☪

환대의 삶

이주민·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저는 종종 ‘환대’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환대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환대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친척이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환대를 경험합니다. 서로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고 등을 두드리며 친밀한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환대는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환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만을 환대하지 않고,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병자와 어린이들,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주시며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는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루카 14,21)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 말씀은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푼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9-37 참조)의 이야기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잘 나타납니다.

환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루카 9,3).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대를 청하고 환대에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길을 떠난 제자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의 환대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환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환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환영’이란 무엇보다도 이주민과 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선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대란 그들이 각자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그 목적지는 이주민과 난민을 맞이하는 장소일 수 있고, 안전한 거처와 최소한의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새롭게 자리 잡은 삶의 터전에서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 2,19).

제가 일하고 있는 의정부 엑소더스를 찾아오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어려움을 안고 저희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목적지’에 평화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환대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교구
소식**

2026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2/4(수) 14시 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6전시홀

주례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 1월 26일(월)부터 2월 3일(화)까지

9일 기도로 <사제들을 위한 기도2 + 주모경>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사목 교리교사 양성 월례모임

일시 2/7(토) 10시~12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주제 신약성경의 서간문과 사도 바오로 강사 강선남 헬레나

접수 2/3(화)까지 문의 031-850-1458 교리교사공통



2026년 예비 고1 피정

〈1차〉 1-2지구	〈2차〉 5-8지구	〈3차〉 3-4지구
1/31(토) 13시~17시	2/7(토) 13시~17시	2/28(토) 13시~17시
갈매동 성당	에피파니아 청년센터	에파타 청년센터

대상 의정부교구 내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예정 청소년

회비 1만원 (참가 청소년만 참가비 납부)

접수 1/2(금)~2/23(월)

문의 031-850-1459 청소년부



[담화] 2026년 제34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제34회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제·부제
서품식의
의미**



사제·부제 서품식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서품을 통해 교회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과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기신 이래, 성령 안에서 이어져 온 ‘사도적 계승’의 표징이며, 오늘의 교회가 그 전통 안에 살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서품식은 교구가 해마다 맞이하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입니다. 수품자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함께 기도해 온 공동체의 모든 여정은 교구 모든 신자의 믿음이 모여 만든 결실이기에,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시작’을 넘어 우리 교구가 하느님에게서 새로운 사도적 선물을 받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 교구가 하느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김익호 읍 신부 _ 갈매동 주임, 교황청립 안셀모대학 전례학 전공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3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령 안에서 부른 찬미

강사: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

(대전교구 원로사목 성사전담)

문의: 010-2127-0032

왜, 살아야 하는가? - ICPE 청년 피정

날짜: 2/7(토) / 대상: 수험생, 20대 청년

문의: 010-5646-6594 icpe합정센터

성직자·수도자들을 위한 성령 안에 안식 피정

1차: 3/9(월) 14시 ~ 10(화) 14시

2차: 7/6(월) 14시 ~ 7(화) 14시

3차: 9/14(월) 14시 ~ 15(화) 14시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2인실 (9만원), 1인실 (10만원)

문의: 010-5490-534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4(수)~12(목), 3/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겨울 한라산 눈꽃산행과 자연순례:

2/2(월)~4(수), 2/7(토)~9(월)

2/20(금)~22(주일), 2/26(목)~28(토)

3월 사순시기 제주 성지순례와 올레길, 자연순례

추차도: 3/1(주일)~4(수), 3/12(목)~14(토)

차귀도: 3/7(토)~9(월), 3/16(월)~18(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27 이상기 회장, 2/3 신교선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가정선교회 2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2/7(토), 이상국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2/11(수),

김현우 신부, 김에프렘 수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2/21(토), 김경진 신부

시간: 12:30~16:4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가정선교회

서울대교구 제4성북지구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수) 18시~21시 (말씀, 축복기도)

장소: 길음동 성당 소성전 (주차 가능)

강사: 1/28 김성대 신부, 2/4 양창우 신부

문의: 010-9248-8151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2/27(금)~3/1(주일), 3/20(금)~22일(주일) [2박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 순례: 2/6(금)~8(주일), 2/27(금)~3/1(주일),

추차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3/18(수)~21(토),

4/11(토)~14(화), 4/23(목)~26(주일)

올레 바닷길: 3/27(금)~29(주일)

유채꽃길: 4/18(토)~20(월)

엠마오: 4/5(주일)~7(화)

문의: 064-732-4702 면형의집

한마음 사계 피정 - 대침묵 피정

2월: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2/6(금)~8(주일), 이종경 신부

3월: 천지창조 6일을 통한 하느님의 선물

3/13(금)~15(주일), 김승훈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신청: QR 접속 /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교육 · 모집 ▶▶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트롬본, 타악기

오디션: 2/1(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 (오디션곡은 자유곡)

문의: 010-4856-2596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목동동 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일시: 매주(목) 20시, (주일) 미사 전·후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자나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제출

접수: bona84@uca.or.kr ※ 소정의 봉사료 지급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공부

접수: 2/20(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가톨릭전례꽃꽂이과정 수강생 모집

일반·지도자·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내용: 성전 꽃꽂이를 위한 플라워 디자인 조형요소

및 원리, 전례력·전례 일정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기간: 3월~6월, 매주(수·목)

장소: 가톨릭대평생교육원 (부천 역곡)

접수: <https://lifelongedu.catholic.ac.kr>

문의: 02-2164-6587

사순 준비 피정

일시: 2/4(수) 10~17시 (점심무료제공)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강사: 김재덕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예수회 금요 기도학교

기간: 3월~6월, 주 1회 (학기제)

일시: 매주(금) 10시~13시

장소: 예수회 센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내용: 체계적 기도 강의, 정기적 침묵 피정

기초부터 따라하는 기도 실습

회비: 15만원 (학기당)

문의: 02-3276-7777 (평일, 10시~16시)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1학기 수강생 모집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일시: 3/12~6/25, 매주(목) 21:30~22:30 [16주간]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회)

신청 및 문의: 010-8911-5957

제17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자연농의 가치를 배우며 모든 피조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교육

기간: 3월~10월, 토요일 [월2회]

장소: 박달산 텃밭 (파주시 광탄면)

교육비: 17만원 (실습발 분양비 포함)

인원: 25명 (선착순) / 접수: 3/6(금)까지

문의 및 신청: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날짜: 3/16(월)~25(수), 4/20(월)~29(수),
5/18(월)~27(수), 6/15(월)~24(수)
장소: 강원도 홍천 (서울 출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00만원 / 문의: 010-7451-9707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6차 모집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접수: 1/26(월)~2/20(금) / 전형일: 2/21(토)
모집: 게임그래픽&웹툰만화애니메이션,
게임시&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문의: 02-705-8678, scec.sogang.ac.kr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연습: (화) 19시, 아람누리 (정발산)
문의: 010-9842-8818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자격: 16세 이상의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신자,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토)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 특강

주제: 영성신학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외)
영성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외)
대상: 재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일시: 1/26(월)~2/5(목)
방법: Zoom 온라인강의
신청: 홈페이지 gsot.sogang.ac.kr

한국어교실 강사 모집

일시: 3월부터 매주일 3시간
장소: 파주 엑소더스
모집: 한국어 교실 선생님 1명 (자원봉사)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접수: 2/12(목)까지
문의: 031-948-8105 한국어 교실 담당자

제 44기 복음화학교 개강

신자들을 새로운 복음화의 삶으로 이끌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양성
1/28(수) 19:30 교구청 지하
2/3(화) 20시 덕정 성당
2/24(화) 19:30 마두동 성당
문의: 010-5182-3066 복음화학교 교무국

이콘 연구소 제24기 신입생 모집

실기시험: 2/21(토), 23(월) 10:30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 (중구 중림로27)
내용: 이콘 제작 및 연구 (1960년 이후 출생자)
강사: 장금선 예로니모 신부 / 개강: 3/3(화)
문의: 02-313-9973

상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14~6/13,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14~12/5, 매주(토) 09시~18시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장소: 신앙교육원
문의: 031-874-6272



코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 (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전시] 우소영 마리아 드로잉展-의심과 호기심

오픈: 1/31(토) 16시
일시: 1/31(토)~2/13(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이태리 성체성혈 성지순례

이태리 성체성혈 기적 성지 10일
(아시시, 산조반니로폰도, 로마 포함)
4/9(목) 출발 /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4/14(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4(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18(월) 이탈리아, 프랑스 루르드 (12일)
5/26(화) 이탈리아 일주 (12일, 아시아나)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콘솔라따선교수도회 해외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40~60대 초반 가톨릭신자
문의: 010-5303-9177, ehkrosa@hanmail.net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8(수) 일본 나가사키 (4일, 165만원)
4/8(수)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KE)
4/10(금), 5/12(화) 산티아고 도보순례
(13일, 10일, KE)
4/1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3일, 509만원)
4/14(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59만원)
4/20(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 (12일, 560만원)
5/12(화) 반뇌, 루르드, 스페인, 파티마
(12일, 549만원)
6/4(목)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2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7(화)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6/9(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6/23(화)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용정, 연길, 도문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KakaoTalk 플러스친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의정부교구

우리 교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교구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서울 수녀원 (명동 가톨릭회관 209호)	010-9353-1773

독서대 (Amb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9월 30일,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에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더욱 친숙하고 경건하게 대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독서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서대는 말씀 전례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독서대의 기원은 유다교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설명하던 베마(bema)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주어 전례가 거행되는 공간에도 성경 봉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초기 그리스도교 성당들에서는 독서대가 회중의 눈에 잘 띄도록 제대 근처 약간 높은 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뤄져 있으며, 이 두 부분이 하나라고 강조합니다(전례헌장 56항 참조).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말씀 전례의 장소인 독서대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그 존엄성에 비추어 성당 안에 있는 알맞은 곳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소는 말씀 전례 동안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보통 고정된 독서대여야 하며 움직이는 단순한 책 틀이어서는 안 된다. 독서대는 성당의 구조에 따라 설치하되 신자들이 성품을 받은 봉사자들과 독서자들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309항).

독서대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한 이유는 성찬 전례와 함께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 전례의 중심인 제대와 더불어 말씀 전례의 중심인 독서대 역시 성당 구조에 있어 합당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식탁'이라는 의미에 맞게 독서대를 이루는 재료도 제대와 조화되는, 고상하고 튼튼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는 하나이던 독서대를 두 개로 늘려 설치하는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이 봉독하는 독서들과 화답송을 위한 독서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부제)가 봉독하는 복음과 강론을 위한 독서대였습니다. '진실의 입'으로 유명한, 로마의 코스메딘 산타 마리아 성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례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 제대가 하나인 것처럼 독서대도 하나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서 말씀 전례(독서대)와 성찬 전례(제대)를 통해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따라서 미사 전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어 마음에 새기고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미사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똥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 번주 본당 축일 명단
26일 바울라: 이해정
27일 안젤라: 신은석
- 2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홍유 안나, 이부성 카타리나, 김옥희 마리아, 서강열 별따 장헌택 루가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2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2월 봉성체
일 시: 2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2월 성시간
일 시: 2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 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중요한 사도요한 새 사제 본당 미사 집전
일 시: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새 신부님의 안수예식이 있습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일 시: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설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 하실분은 2월 13일 금요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 축성 및 봉헌 안내
2월 2일(월) 주님 봉헌 축일에 1년 동안 성당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 분과 가정에 사용할 초를 구입 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문의 바랍니다.
제대 사용 봉헌 밀납 초: 1개 60,000원
가정용 초: 1개 5,000원
- 성 가지 회수
2월 18일 재의 수요일에 참된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예절에 사용될 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어 나누어 드린 성 가지를 2월 11일 수요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1월 월례회의
일 시: 1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1/12 - 1/18)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3건	270,000원
주 일 헌 금	1,124,000원

● 감 사 예 물	
하태승 50,000원	전상호 100,000원
김미영 50,000원	이종하 10,000원
이동준 300,000원	최인숙 30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답송



(후렴) 주 님 은 나의 빛, 나의 구 원 이 시 다.